

- 주요 뉴스: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예정 0.25%p 금리인상 예상. 분절화 대책 등도 관심
 - IMF의 7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월과 비교하여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과도한 금리인상 우려는 불필요
 - 중국 인민은행,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9%], 달러화 강세[+1.0%], 금리 하락[-17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고물가 우려 및 일부 기업 실적 부진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0.8%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0%, 1.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배경
 독일은 역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1bp 하락
- ※ 원/달러 환율(주간) 1.9% 상승, 한국 CDS 하락

		7/15일	7/8일	전주말대비			7/15일	7/8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863.2	3,899.4	-0.93%	국채 금리 10y	미국	2.92%	3.08%	-17bp
	유럽	413.78	417.12	-0.80%		독일	1.13%	1.35%	-21bp
	중국	3,228.1	3,356.1	-3.81%	CDS 5y	한국	51bp	52bp	-1bp
	일본	26,788	26,517	1.02%		중국	87bp	80bp	7bp
	한국	2,331.0	2,350.6	-0.84%	위험 지표	EMBI+	498	457	41bp
환율	달러지수	108.06	107.01	0.99%		VIX	24.23	24.64	-1.66%
	유로화	1.0080	1.0185	-1.03%		WTI유	97.59	104.79	-6.87%
	엔화	138.57	136.10	-1.78%	원자재	구리	323.5	353.2	-8.42%
	위안화	6.7572	6.6946	-0.93%		금	1,708.2	1,742.5	-1.97%
	원화	1,326.1	1,300.4	-1.9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 7월 통화정책회의 예정, 0.25%p 금리인상 예상. 분절화 대책 등도 관심

- ECB는 7/21일 통화정책회의를 계획.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ECB가 그 동안 예고했던 대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0.2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 이를 통해 예금금리는 -0.5%에서 -0.25%로 상향 조정
-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 시 당연한 선택. 다만 ECB의 통화긴축 속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상태이며, 이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가 등가(parity)를 이루는데도 상당히 기여
- 그러나 역내 취약국의 국채금리 급등 가능성 등으로 ECB가 금리인상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 골드만삭스는 ECB의 0.25%p 인상이 확실시 되는데, 이는 사전 예고가 있었을 뿐 아니라, 최근 역내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
- 이에 시장에서는 ECB가 보다 구체적인 분절화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여부에도 초점. Pictet Wealth Management의 Frederik Ducrozet는 ECB가 중기적 측면에서 역내 취약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대담하고,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
- ECB 라가르드 총재는 이러한 이중적 상황(과도한 유로화 약세 방지 및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 금리인상이 요구 vs. 경기침체 압력 증가 및 분절화 위험 등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신중할 필요)에 직면하여 향후 통화정책 경로 관련 현명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IMF의 7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4월과 비교하여 큰 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

- Ceyla Pazarbasioglu 전략책임자는 에너지 및 식품가격 급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지속,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 이와 같은 연속적인 충격은 세계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부연

■ G20 재무장관회의, 식량불안 및 부채증가 관련 논의 불구 성명서 채택에는 실패

- 전세계적인 식량부족과 부채증가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했으나 구체적 사안 관련해서는 이견이 여전. 이에 일부에서는 G20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에 의구심 제기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과도한 금리인상 우려는 불필요

- 데일리 총재는 연준이 정책금리를 지나치게 인상한다는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 경제는 매우 강하며,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오히려 가계의 실질 지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 다만 대출상환 부담 증가 문제는 발생한다고 첨언

■ 블룸버그 조사, 미국의 1년 내 경기침체 진입 확률이 50%에 근접

-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이내 경기침체 발생 확률은 전월(30%)보다 상승한 47.5%. 전문가들은 연준이 경제성장률을 희생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신속한 금리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

■ 미국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여 추가적인 원유 증산의 필요성을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등과 만나 신속한 원유 공급 확대를 강조했으며, 왕세자 측도 관련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 또한 수 주 이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피력. 다만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도 구체적인 증산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

■ 미국 재무장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관련 G20과 생산적인 대화

- 옐런 장관은 해당 방안이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고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 한편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 표명

■ 중국 인민은행, 경기부양을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설 방침

- 이강 총재는 코로나 팬데믹과 몇몇 대외 요인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지만,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강하다고 지적. 다만 이를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발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7/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5월 도매재고(전년동월비): 1.4%, 5월(1.3%), 예상치(1.2%)

■ 주요 경제 이벤트(7/18 현지시각 기준)

- 일본 해양의 날 휴일, 미국 7월 NAHB 주택시장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공급망 차질 완화 및 재화 수요 관련 상반된 시각이 존재 - 블룸버그

(Supply Chains Inching Back to Normal Brace for Headwinds of Softer Demand)

- 최근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해상운임료가 '21년 5월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공급 문제가 완화되는 징후가 관측. 이에 Citi의 Nathan Sheets는 공급 문제 완화는 긍정적이며 오히려 제품 수요 부진이 새로운 위협요인이라고 지적
-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유럽과 미국 동부 간 해상운임료의 상승과 러-우 전쟁 지속 등을 고려 시 공급망 완화 기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 또한 6월 소매매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 역시 소비둔화를 확산하기에는 부적절

■ 중국의 성장률 회복 기대,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의 부실화 초래할 우려 - Financial Times

(China growth hopes rest on troubled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 중국은 2/4분기 성장률 부진 등으로 금년 성장률 목표(5.5%) 달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이에 당국은 경기부양책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LGFVs)의 건설 활동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
- 그러나 당국의 그림자금융 규제 강화로 은행들은 LGFVs 관련 채권 판매를 기피. 이에 LGFVs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이에 대응하여 개인투자자에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 조달을 추진했으나, 정부는 해당 방법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
- 채권 투자자들은 시진핑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해도, LGFVs의 자금조달 및 부실화 가능성 등을 경고

■ 미국 레버리지 론 가격 하락, 대규모 채무불이행 가능성은 낮은 편 - WSJ

(Debt-Market Jitters Come for Leveraged Loans)

■ 미국 연준, 선제적 지침을 유연하게 제시·운용할 필요 - WSJ

(The Fed Needs to Rewrite Its Playbook)

■ 외국인들의 중국 투자, 대체 신흥국 투자처 부재로 급격한 축소는 기대안 - 블룸버그

(China Is Pariah for Global Investors as Xi's Policies Backfir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